

혁신 클러스터 오타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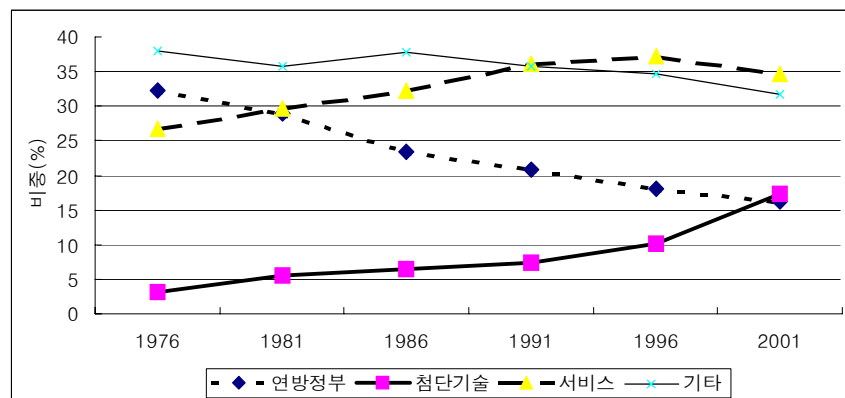
- 행정수도이자 혁신도시의 모범사례 -

- 오타와는 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과제를 가진 우리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음
 - 오타와는 최근까지 캐나다의 수도, 관청도시, 행정도시로서 알려져 왔지만 2001년을 정점으로 첨단산업도시, 혁신 클러스터, 혁신도시 또는 실리콘밸리 노스로 도시 이미지가 바뀌고 있음
 - 새로운 이미지의 혁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인프라와 고품격 삶의 질 환경 조성, 연구개발형 첨단 대기업의 입지와 이로부터의 활발한 창업 그리고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
 - 성공의 이면에는 지식기반경제시대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인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
- 기능적·선택적 이중전략 수립과 이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리더 조직의 실천력을 통하여 기존 도시도 새로운 이미지의 혁신도시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 시사
 - 정책의 효과가 모든 산업에 균등히 확산되는 인프라 및 제도적 환경 조성
 - 과 선택된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이중전략 추진 필요
 - 정책효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해 나갈 역량 있는 주체 필요

1. 관청과 첨단기술산업의 도시 오타와

- 오타와는 캐나다의 수도로 결정된 이후 계획개발된 도시로, 지난 100년 동안 수도이자 행정도시로서 성장하여 왔음
 - 캐나다의 수도는 초기 킹스턴(1841~1844) 이후 1859년까지 몬트리올, 토론토, 퀘벡 그리고 다시 토론토로 바뀌다가 1867년 연방정부가 탄생하면서 오타와로 결정됨
 - 오타와는 영국계와 불란서계의 접점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음
- 2001년 이후 오타와는 관청도시를 넘어서 ‘실리콘밸리 노스’로, 첨단기술산업도시로, 고급두뇌가 집적된 혁신도시로 명실상부한 지위를 획득함
 -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조달로 초기(1947~1960) 기업들이 집적된 이후 노텔 등 연구개발형 대기업의 입지와 활발한 창업으로 획기적 발전(1961~1985),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클러스터로 인정(1986~1998)됨
 - 2001년을 고비로 첨단기술산업 분야 고용이 연방정부관련 고용을 능가

〈그림 1〉 오타와 첨단기술 종사자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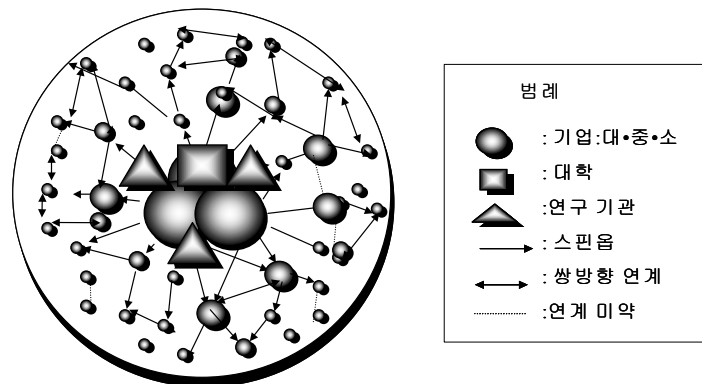
자료: OED(2001)

2.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경쟁력

- 오타와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. 첫째, 클러스터가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인프라와 도시적 매력이었음
 - 도시정부가 도시미관 증진과 매력적인 지역사회형성에 노력한 결과 기업은 떠나도 종사자는 지역을 떠나지 않는 삶의 질이 높은 환경 창출

- 기업들은 첨단기술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오타와에 입지
- 둘째, 연구개발지향형 대기업의 입지로 활발한 창업과 창업한 신생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역동적 지식기반사회¹⁾를 형성
 - 1960년 이후 노텔(Nortel), 미텔(Mitel Corporation), IBM Canada 등 연구개발지향 대기업의 입지와 이들로부터의 활발한 창업
 - 노텔은 오타와의 핵심적 혁신자·인큐베이터로서 120개 이상의 기업을 스핀오프시킴
- 셋째, 연구기관, 중개기관,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첨단기술기업지원기관의 설립과 활동, 이들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, 규제해제 등 정책적 지원이 있었음
 - 오타와 칼튼 대학의 연구역량과 인재공급, 연방 연구실험실의 연구역량, 리서치 파크, 벤처캐피탈, 기업지원기관들의 포진과 이들간의 네트워크 형성
 - 첨단통신분야의 독점해제와 진입장벽 철폐로 인한 활발한 창업

〈그림 2〉 오타와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모형



3. 역동적 성장의 근원,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생명공학산업

- 세계의 혁신도시, 첨단산업도시, 테크노폴리스들의 성장 이면을 보면 주로 컴퓨터, 소프트웨어, 첨단정보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역동적 성장에 기인함
 - 소피아 앙띠폴리스의 경우 첨단정보통신,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이 지배적이고 화장품 및 생명공학산업은 10% 미만에 불과

1) 레스터 서로우(Lester Thurow)는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갖춘 사회를 지식기반사회라고 함

- 오타와 클러스터의 경우 역시 첨단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등이 주력산업임
 - 첨단정보통신은 무선통신장비 중심이고 소프트웨어는 게임, 오락, 애니메이션 같은 뉴미디어 문화콘텐츠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(기업수 65%, 종사자수 80% 차지)
 - 생명공학분야 클러스터의 핵심은 대학과 병원의 연구기술로서 원격진료, 의료 정보 및 기기에 집중되어 있는 등 첨단통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(기업수 3.5%, 종사자수 3%)

4. 정책적 시사점

-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조성과 매력적인 도시를 가꾸어 삶의 질이 높은 환경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
 - 기업이 폐업을 하여도 종사자가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면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은 이전해 올 것임
 ⇨ 정책의 효과가 모든 산업에 균등히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
- 높은 성장을 보이는 산업은 일부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맞고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
 -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우위를 가진 자원을 활용한 선택적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
 ⇨ 선택된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기능적 전략과 선택적 전략 등 이중전략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추진주체가 필요
 - ⇨ 고품격의 삶의 질 환경 조성 and 핵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갈 리더조직 필요
- 기존 도시도 새로운 이미지의 혁신도시로 발전가능
 - ⇨ 신도시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의 도시도 새로운 기능도시로 탈바꿈 가능

국토연구원 권영섭 연구위원 (yskwon@krihs.re.kr, 031 - 380 - 0165)